

It's Been
a Long Time

to my husband **Penn**
and **Roald Dahl**
without whom this book would have never been written

1	여향	5
2	불고기	18
3	바다	30
4	웅덩이	47
5	섬	64



어항

“그건 존나 멍청한 생각인 것 같아.”

로넌 벤슨이 말했다.

“이런 씨발, 또 뭐가 어떤데.”

저스틴은 경쾌하게 받아쳤지만, 슬슬 지친 기색이었다.

“여자애한테 폭격기를 사주는 미친 생각은 나치 말곤 안 한다고.”

“이건 폭격기가 아니야. 그냥 장난감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상자를 들어올렸다. “이것 봐, 예쁜 색깔이잖아.”

“전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저스틴은 점원을 불렀다. 이 옆에, 다른 모델도 남아 있나요? 하늘색이요.

“끔찍한 길로 빠지고 있군.”

차에 선물 상자들을 실으면서도 로년은 계속 투덜거렸다. 그는 차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창틀에 팔꿈치를 올리고 콧방귀를 뀌었다.

“네 말투 말이야. 너무 징그러워.”

“한 번만 더 불평하면 네 옛 같은 이름은 명단에서 뺄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로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스틴이 시동을 걸자 폰티악은 기분 좋게 가르랑거리더니 튀어나갔다.

그들은 한동안 단조로운 펜실베니아의 풍경을 지나 달렸다. 로년은 한참 턱을 꾸 채 창밖을 무서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말했다.

“날 싫어할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똑 같은 놈. 날 왜 데리고 온 거야?”

로년은 글러브박스를 뒤지더니 담배를 찾았다. 창을 내려야 했다.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진짜 지랄하지 마. 꼬맹이 생일 파티에 가서 내가 뭘 하라고?”

“데이브 짐은 어쩌고?”

“그거야 네가 가져다 주면 되잖아.”

로년이 애매하게 굴자 저스틴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걸 내가 왜 갖다 줘? 직장 동료는 넘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작전명은 공주님 생일 파티야. 내가 공주 시중 드

는 동안 왕비를 작업해보든지.”

로넌은 앓는 소리를 냈다. 만족스럽게도 로넌은 곧 암전해졌다.

창으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저스틴은 운전대를 돌려 유니언 카운티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저 이상한 기계도 꺼내서 줄까?”

“글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스틴의 대녀인 피비 보일은 장미 같은 뺨을 가진 사랑스러운 어린애였다. 어머니인 그레이스는 저스틴의 하나뿐인 누나였는데, 아기가 뱃속 오븐에 자리잡자마자 그를 대부분으로 정했다. 저스틴은 곧 대녀의 버릇을 망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했다. 지금 아이는 여섯 살이었고, 작전은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

로넌 벤슨은 그레이스를 좋아했다. 그는 저스틴과는 달리 완전히 샌님이었다. 그는 데이비드 보일과 함께 트랜지스터 같은 걸 만들었고, 노벨상을 탈 확률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연구실에서 일했다.

이 년 전 데이비드 보일이 실종된 뒤 벤슨은 애처로워 보일 지경으로 예비 미망인이 된 보일 부인 주위를 맴돌았다. 저스틴은 원래 주일이면 가게를 닫고 보일 내외와 함께 미사에 갔는데, 가장이 사라진 뒤에도 그 일은 계속되었다.

그는 간혹 숫기 없는 친구를 그 자리에 데려갔었는데, 오늘은 그 딸인 피비를 소개시켜주려는 것이었다.

로넌은 날카롭고 섬세한 남자였지만 여자 앞에 가면 세기의 찐따처럼 굴었다. 저스틴은 그런 것까진 구제해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찐따의 불평과 자책을 받아 줘야 했다. 그것은 연구실에 있던 데이비드의 짐을 챙기는 순간부터 보일 가의 문간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션 삼촌이 왔구나. 벤슨 씨도 오셨군요.”

저스틴은 피비를 안아들었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데. 조금 있으면 날개도 돋겠군.”

로넌은 대녀의 애정을 담뿍 받고 있는 친구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곧 말쑥한 척을 했다.

아이는 다행히 폭격기를 좋아했다. 저스틴은 비어 있는 서재에서 조카와 비행기 놀이를 했다. 아이도 그가 퇴역 조종사란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 듣는 일을 좋아했다.

“비행기에 괴물도 타?”

“비행기에 괴물은 초대하지 않지. 그런데 몰래 타.”

“왜?”

“놀고 싶어서. 이름은 그램린인데, 비행기를 고장내면서 장난치지.”

피비는 큰 눈을 치떴다.

“못됐구나.”

“일부러 그리는 건 아닐 거야, 그램린은. 그냥 벌듯이거든.”

그러자 아이는 자신의 대부분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믿을 것처럼 동그란 머리통을 앞뒤로 주억거렸다. 그럴 때면 아이는 못 견디게 귀여웠다. 버릇을 썩여 놓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이었다.

저스틴이 내년은 연 예산의 몇 퍼센트를 거기에 책정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불렀다.

“피브스, 삼촌이랑 얘기 좀 하게 이리 나와 봐.”

“나가죠, 공주님.”

저스틴은 아이와 거실로 나갔다. 그레이스는 자기 딸만큼이나 행복해 보였다. 그러나 로넌은 이미 땀을 몇 리터는 흘린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는 로넌을 놀렸다.

“임무 수행을 잘 하는군, 로넌.”

‘끝나고 널 죽일 거야.’

로넌은 눈빛으로 말했다.

“벤슨 씨가 친절하게도 연구실에 남아 있던 짐을 가져다 주셨어.”

‘친절하게도, 라. 내가 몇 번을 닦달했지.’

황소 고집의 로넌을 움직여 옷을 빼입하고 여기까지 데려온 공로는 전부 저스틴 자신에게 있었기에, 얼타는 그를 좀 놀릴 권리 정도는 있었다.

지금도 로넌은 빌어먹을 수줍음 때문에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저스틴은 본의 아니게 큐피드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비웃었다.

그때 벤슨이 조금 망설이다 말했다.

“아, 그런데 이상한 물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직 차에 있습니다.”

벤슨은 유식한 미간을 찌푸렸다.

“창고에서 진공관 장치 같은 게 나왔는데, 정체를 모르겠어서 염치 불고하고 제가 좀 뜯어봤습니다만. 연구소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계더군요.”

“그거 나도 봤는데, 보잉 조종석에 붙은 기계들을 똑 뗀 것처럼 생겼어. 전기도 만만찮게 잡아먹게 생겼던데.”

그레이스는 남편이 그런 기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았으나, 곧 고개를 저었다.

“어디선가 희한한 고철 장치들을 많이 모아서 분해하곤 했었는데, 워낙 많았어야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부인만 괜찮으시다면, 그건 제가 가지고 있다가 뭔가 밝혀지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저스틴은 웃으며 친구의 등을 쳤다. ‘회의라도 소집하려고?’

그레이스는 신뢰감 담긴 눈빛으로 둘을 올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다 고마워요.”

아이가 잠들었다. 차고를 빠져나온 폰티악은 부드럽게 골목을 돌아나갔다. 두 사람은 다시 뉴욕으로 가기 위해 어둠을 뚫고 차를 달렸다.

로넌이 말했다.

“놀라운 여자야. 꼭 꿈꾸는 것 같은 눈을 하고.”

“데이브도 그랬지.”

그러나 로넌은 고개를 저었다. “아냐. 달라.”

“적어도 그레이스는 현실에 불어 있지. 데이비드는 정신이 딴 세상에 가 있었어.”

저스틴은 운전대에 올린 손가락을 두들기며 노래에 박자 를 맞췄다.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지.”

로넌과 한 집을 쓰면서 많이 듣던 이야기였다. 터무니없는 장치들과 근미래에 대한 상상, 시간여행, 잠수함, 게임...

“과학자 같지 않은 순간들도 많았어. 이상한 기계를 얻어 왔다고 떠벌리기도 하고...”

“그래서?”

“글쎄, 나하고는 일적으로 잘 맞지 않았어. 그리 친하지도 않았지만... 본인도 기회가 됐다면, 처남처럼 파일럿이 되었을 거라고도 했어. 공군에서 복무하지 못한 걸 아쉬워했거든.”

“그래? 데리에 살 때는 전혀 못 들은 내용이군.”

로넌은 피곤한지 눈을 부렸다. 솔직히 말하면 데이브는 약간 재수없는 개새끼였는데, 실종된 사람에게 사용하기 적합한 용어라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하게 감이 좋아서 일어날 일을 때려맞추기도 했단 말이야. 소련이 뭘 쏈다거나, 나사 발족 같은 것들...”

“좀 선지자 같은 면이 있었지.”

로년은 충혈된 눈으로 어두운 차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저런 게 나오니까, 그 말들이 다 근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저스틴은 로년이 트렁크에 실린 기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저 기계? 저게 뭔데?”

“전뇌.”

로년이 본인도 자신없는 투로 이야기했다. “지나가다 그렇게 말한 적 있거든. 자기가 전뇌를 갖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는 물었다. “인공지능이라고 들어봤어? 매카시 박사가 한 말인데.”

저스틴은 기계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개발자보다는 작동자에 가까웠다.

“들어는 봤을지 모르지만, 기억도 안 나는군. 뭔지도 모르겠고. 꼭 신화처럼 들리는데.”

“요즘 그런 연구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금방 식을 거라 생각하지만... 모든 게 이론 단계야. 아마 인공신경망을 만드는 것보다는 달에 가는 게 더 빠를 거야.”

저스틴은 로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저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라면, 그닥인데. 에니악은 이 차보다도 크던데 저렇게 작은 것 안에 뭘 쑤셔넣을 수 있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로년은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잘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는 원래 확신이 없으면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아까 짜증내던 것도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콕핏의 한 부분처럼 생긴 그 기계는 결국 집 거실에 놓이게 되었다. 로년은 그것을 잘 건드리지 않았고, 연구실로 가져가지도 않았다. 저스틴도 손을 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그게 가정용 전력으로 전원이 켜진다는 것은 알았다. 전압을 변환해주는 장치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외의 기능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때로 로년이 버튼을 조심스럽게 눌러보거나, 뒤판을 빼어보았지만 별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기계는 마치 어항처럼, 판판한 화면 같은 것에 푸르스름한 빛깔만 띠운 채로 텔레비전 옆에 놓여 있었다. 그것만이 전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 주방에서 접시를 닦던 저스틴은 그 어항에서 훌러나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이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저스틴은 공중으로 반쯤 던진 접시를 받아들고는 욕을 씹

어뱉었다. 그는 접시를 건조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황당한 얼굴로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어항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저스틴은 행주에다 손을 닦으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어항은 반복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헤일로 2167. 초광 속 네트워크 연결 오류. 데이터 송신 불가. 반복한다.”

“이건 또 뭐야...?”

저스틴은 어항에서 흘러나오는 긴박감 없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분명했다. 그는 그때까지 그 기묘한 기계에 음성출력장치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헤일로 2167. 초광 속 네트워크 연결 오류. 데이터 송신 불가. 외부 지시를...”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저스틴은 애꿎은 천장만 쏘아보았다. 투시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는 이 어항이 비상주파수라도 잡은 건가 싶어서 전파 수신기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어쨌든 분명 한 긴급신호였다. 어디서 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 시끄러...”

저스틴은 기계를 한 대 칠까 하다가 그보다는 버튼을 누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버튼엔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데다 너무 작아서 눌러보기가 저어되었다. 기

계는 혼자 계속 떠들었다.

‘아니, 로넌을 불러야 하나?’

저스틴은 그것을 이리저리 돌려 보았다. 아래쪽에 스피커가 있었고, 뒷면으로는 전원이 들어갔다. 문득 몸체 오른쪽에 고무 코일로 연결된 수화기 같은 게 매달린 것이 보였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저스틴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중대 콜사인을 쓰기로 했다.

“여기는 스터피.”

그러자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겼다. 그는 미심쩍은 심정으로 말을 이었다.

“헤일로 2167. 긴급상황인가? 위치와 엔진 상태는?”

갑자기 소꿉장난을 하는 기분이 들어 저스틴은 얼굴을 조금 붉혔다. 지금은 전투기에 탄 열아홉 살도 아니고, 뉴욕 외곽에서 펍을 하는 마흔 가까운 이민자 아저씨인데.

그런데 기계가 대답을 했다.

“인명정보 대조 결과 시운전비행자 명단에서 1건 확인됩니다. 션 저스틴 “스터피” 라이더. RAF 80 비행중대 출신. 대위 전역.”

기계가 뭔가 술술 말하니 좀 당황하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니 그렇게까지 놀라울 건 없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생몰연도 1922-2008. 런던데리 출생. 1940년 입대, 리비아 주둔, 엘 알라메인 전투 참전, 종전 후 미국 이주, 뉴욕 외곽에서 음식점 경영. 2008년 텔라웨어 카운티에서 사망.

사망 시 주 법률상 미혼, 확인되는 자손은 없습니다.”

소름이 돋았다. 저스틴은 명하니 푸른 화면에 꾸물꾸물 떠 오르는 글자들과, 네모반듯한 사진 하나를 바라보았다.

사막 전투 시절의 그였다.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저스틴은 직물보다 모래가 더 많이 들어있을 법한 그 군복을 입고 있었다.

“2138년, 시운전 센터 입주 및 비행 기록이 있습니다. 서지 및 생체정보, 상호작용 기록을 불러옵니다.”

화면에서 동그란 고리가 돌아갔다. 그 빛이 비추어 더욱 새파래진 눈의 저스틴은 할 말을 잃고 기계를 바라보았다. 푸른 화면 속에서 돌고 도는 고리에 홀린 것 같았다.

그리고 여자가 나타났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스틴. 오랜만입니다.”



물고기

“이건 존나 명청한 짓이야.”

로년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여기는 벤슨. 로년 벤슨 콜린스.”

그러자 기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인명 정보 검색 결과 없습니다.”

“없다잖아!”

세 번째 시도였다. 퇴근한 로년은 저스틴의 재촉에 못이겨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어항’ 앞에 앉아 이름을 밀하고 있어야 했다.

“이상하네. 아깐 내 신상을 출출 읊던데. 언제 어디서 죽는지까지 알려줬다구.”

“말이 돼? 지금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저스틴은 어쩔까 하다가 그냥 실실 웃었다. “난 항상 진지

하지.”

로년은 베튼을 몇 개 눌러 보았다. 공학자의 감각으로 선택한 것이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화면이 꺼지고 그냥 그 위에 떠올랐어. 말도 했고.”

“어떻게 생겼는데? 그게 헤일로 2000인가 그거야?”

저스틴은 여자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구불구불한 흑발에, 파란 눈이었다.

“헤일로 2167이라고 했어. 내가 아는 여자 같기도 하고...”

“녀야 전세계 여자들을 만나고 다녔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저스틴은 사소한 오해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끗끗이 의견을 개진했다.

“민항기 조종사 같기도 해. 콜사인 형태가 그렇잖아.”

“요즘 민항기는 대단하군. 가정용 컴퓨터에 침투해서 영상까지 송출하고 말이야.”

“가정용 컴퓨터? 이게 가정용 컴퓨터야? 재밌는데.”

로년은 넥타이를 잡아당기더니 말했다. “난 재미없어. 난... 배가 고파.”

저스틴은 주방을 가리켰다.

“저녁 해뒀으니까 먹든지. 난 아까 먹었어.”

로년은 자리를 잡더니 3년은 굽은 사람처럼 고기 파이를 먹어댔다. 배가 차기 전에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로년을 잘 아는 저스틴은 그를 내버려두고 어항 앞에 앉았다.

“여기는 스터피. 헤일로 2167, 들리나?”

“저스틴, 헤일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스틴은 뒤로 돌아 로넌에게 소리쳤다. “론! 그 여자 또 나왔다!”

“머? 제길! 왜 네가 불러야 나오는 거야?”

로넌은 파이를 입에 쑤셔넣더니 다시 이쪽으로 뛰어왔다.
그리고는 얼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네. 여자가 있잖아.”

헤일로라는 여자가 일정 시간 말을 걸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건 아까 확인한 바였다.

“헤일로 2167, 아직 긴급상황인가?”

“긴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로넌은 입을 껍 벌렸다. 대화를 하고 있잖아!

“초광속 서버 연결 문제가 있습니다.”

로넌은 배에 파이가 좀 차고 잠시간 대화를 듣자 정신을 차렸다. 그는 금방 저스틴의 방식을 채택했다.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거지? 사람을 인식할 수 있나?”

“션 저스틴 “스터피” 라이더, 1963년 생존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접시를 든 저스틴의 얼굴이 뜨자 두 사람은 모두 놀라서 뒤집어졌다.

“이런 씨발! 날 찍었잖아.”

“카메라 구멍이 있어! 이거 러시아 스파이 캠이라고!”

로년은 알 수 없는 기계에 분개했다.

“너 정체가 뭐야? 당장 밝히지 않으면, CIA에서 조사받게 될 거다!”

저스틴은 본인들에게 그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두 남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곧 들은 그것이 러시아 스파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저는 헤일로. 비행사 교육 및 보조를 위한 종합 솔루션입니다. 헤일로는 미 항공우주국의 지원을 받아 2139년 출시 되었으며, 2167년 기준 전세계 50여개국에서 조종사 양성 및 실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창립 CEO인 데이비드 보일은 ‘누구나 즐거운 비행을’ 모토로...”

“스탑, 스탑! 데이비드 보일이라고?!”

로년은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더한층 분노했지만 저스틴은 갈수록 얼이 빠질 뿐이었다. 그는 이미 이 현상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짓을 관뒀다. 뭔가를 영매로 신비체험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자 꿈 같은 것이 떠올랐다. 분명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더 유연하고, 무한하고, 나사가 빠져 있던 짧은 시절에...

“이건 사칭범이야. 어찌됐건...”

“봐, 로년. 나 이걸 본 적 있는 것 같아.”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십니까?”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말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필요

요했다. 저스틴은 주전자처럼 김을 뽑고 있는 론을 내버려두고 헤일로에게 말했다.

“헤일로, 내 정보는 어떻게 알지? 나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이번에도 헤일로는 지체 없이 대답했다.

“귀하는 2138년 제품 개발 단계에서 시운전비행자로 참여했습니다. 당초 저는 AI 관제사로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의 수집된 서지정보, 생체정보 및 상호작용, 비행기록을 학습했습니다.”

로넌은 “AI라니, fuck.”하고 힘없이 중얼거렸다. 저스틴은 침착하게 되물었다.

“헤일로, 분명 내가 2008년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저스틴은 그 말이 어색했다. 죽는다는 말의 어감이 아니라, 뭔가... 대화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느껴졌다. 말투가 문젠가? 원래 인공지능인지랑 대화하면 이런 건가?

“마담, 어...”

이쪽이 맞는 것 같다.

저스틴은 호의적으로 웃었다. 무서운 것 없던 청년 시절과 비슷한 미소였다.

“마담은 무슨 시간 여행자인가요?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죠?”

분명 이 어항은 뭔가 이상했다. 여자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간 듯도 싶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사항을 브리핑하겠다.”

저스틴은 체스터필드 한 대를 재떨이에 떨었다. 로년은 대마라도 빤 것처럼 눈이 풀려 혼들의자에 늘어져 있었다.

“헤일로는 조종사를 교육하고 보조하는 도구인데 그 중에서도 여자 모양을 한 가상 관제사를 말한다. 나는 그 도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험에 참여했고, 그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2100년대에는 인류가 발전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시간여행도 할 수 있는데, 헤일로는 그 방법을 통해 다양한 시간대의 표본 참가자를 물색하고, 선정하고, 납치해서 비행시키고, 귀환시켰다. 그리고 헤일로 2167은 시운전자들의 정보 수집을 위해 2167년에 각 시간대로 전송된 소프트웨어이다.”

“의사에게 가서, 우리 소변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낫겠어.”

“닥쳐봐, 로년. 난 제정신이니까 너 혼자 해. 이어서, 이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은 데이비드 보일인데, 마흔 살의 상태로 2100년대로 건너왔고, 거기서 백네 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그 전에 자기 신경망에 든 정보를 통째로 남기고 가서 보일 슈퍼컴퓨터에 의존하여 사업적 결정이 이루어진다. 내가 정리한 게 맞나요?”

경청하던 헤일로는 이마에 고리를 띄우더니 잠시 후 대답했다.

“세 가지 보완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운전참가자의 선정은 보일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 참여는 강제가 아니라, 참가자 본인들의 약관 서명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데이비드 보일이 처음 2100년대에 출현했을 때는 스물여섯의 나이였고, 완전히 이주해온 것이 마흔이었습니다. 셋째, ‘HALO Incorporated’는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선임하여 경영되고 있으며, 보일 슈퍼컴퓨터는 오로지 자문 과정에서의 참고용도로 사용되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명한...”

“아아, 됐어요. 필요한 정보는 다 들은 것 같으니까.”

로넌의 말에 헤일로는 다시 대기 모드로 돌아갔다. 저스틴은 씁쓸하게 말했다.

“미래로 도망갔군. 놈팽이 자식. 가족은 내팽개쳐 두고 말이야.”

“그렇다면 이 기계는 대체 뭐지? 왜 남기고 간 거야?”

로넌이 어항 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자 헤일로가 대답했다.

“초광속 통신장치가 내장된 컴퓨터입니다. 데이비드 보일은 1950년에 다른 시간여행자에게 이것을 받아 2100년대와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항이군.’

저스틴은 그렇게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마른 행주로 어항 화면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 마담.”

로년은 미치광이를 보는 표정으로 저스틴을 바라보더니 불쑥 말했다.

“저스틴, 정말 그 시운전인지 뭔지를 했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카이로에서, 엉뚱한 항로로 갔다가 사흘 정도 실종됐었지. 그땐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거든? 격추당할까봐 무서워서 잠깐 미친 줄 알았다고.”

“그렇담 이것도 헛것 아냐? 이제나저제나, 외로워서 만들 어낸 환영인 거지. 나한테 잔소리할 게 아니라, 너도 문제가 많아. 집에 여자가 없으면 이런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냔 말이야.”

로년이 헛소리를 하자, 저스틴은 담뱃불을 끄면서 말했다.

“뭐 감당하고 말고 할 게 있어?

이 물건 주인이 우리가 아니란 걸 잊었군. 전에 뭔가 밝혀 지면 공유하겠다며? 그레이시한테 가져다 주든지...”

로년은 당연히 싫어했다. 죽은 남편이 실은 창업하려 딸자식 버리고 미래로 튀었다니 그걸 전하는 일보다 끔찍한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남자가 숙연해져 있는데, 헤일로가 말했다.

“초광속 통신망 연결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멍청하게 쳐다보자 헤일로는 잠시 후 이어서 말했다.

“원래 헤일로는 여러 시간대에서 동시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은 10년이 넘게 이 기기로 2100년대와 통신해왔습니다. 헤일로 2167이 이 단말로 전송 설치되었을 때도 통신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말기의 통신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스틴은 로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댄다. 어쩔래?”

로넌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인간의 로딩은 인공지능보다 곱절 이상 길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스틴.”

저스틴은 식탁보를 하나 가져와 기계 위에 얹어 놓았다.

“로넌은 오늘부터 출장입니다. 유럽에 가면 초광속 어찌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군요.”

로넌은 결국 헤일로를 두고 보기로 했다. 연구소에서 사람들을 떠보고 다니는 것 같기는 했지만, 별 진전은 없었다. 그는 저스틴이 헤일로와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아주 발작을 해댔다. 헤일로가 작동하는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200년 뒤에는 이런 게 가능한가 보지.”

“그게 제일 이상해. 200년이 지났는데도 인류가 멸망을 안 했다고? 그리고, 그 정도의 지혜를 터득했는데도 인공지능인지 뭐시기가 비행기를 못 몰고 조종사 조수로 말장난이나 하고 있단 말이야?”

제법 예리한 지적이었지만, 헤일로는 간단히 ‘비용 문제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론한테 너무 신경쓰지 말아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트집쟁이가 됩니다. 뭐, 그러니까 재는 대학에 가고 난 못 간 거겠지만...”

저스틴은 헤일로가 인공지능이든 러시아 스파이든 별 상관이 없었다. 그냥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았다. 무엇보다 헤일로는 제법 사람처럼 이야기했다.

헤일로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말을 걸면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런 점이 좋았다.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할 때면, 이마에서 고리가 돌아가며 잠시 지연이 있다가도 금세 검은 머리가 물결치며 소리가 흘러나왔다.

“미래의 데이브와 통신이 되면 좋을 텐데 아쉽군요.”

“데이비드 보일과 그 관련인에 대한 최신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2167년 기준 정보입니다.”

“아뇨, 그건 됐어요.”

그러나 간혹, 그녀는 정말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

“제가 드리는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면 저스틴은 서늘한 감각을 느꼈다. 웬지 걱정스러운 감각이었다.

“아닙니다.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라서.”

“음성 메시지를 기록했다가 통신 회복 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는군요. 마담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들일 것 같으니 그만두지요.”



바다

“저것 봐. 저거 코즈웨이 아냐?”

“그렇네.”

로넌의 말에 저스틴은 손으로 뺨을 찢으며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TV 화면에는 해안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방죽 같은 기암들이 회청색 파도와 부딪히며 늘어서 있었다.

“캐슬락이군.”

그의 고향과 가까운 바닷가 마을이었다. 절벽 위의 푸른 초지에 원형의 돔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저스틴의 기억대로라면 캐슬락 역이 그 근처였다. 그레이스와 어린 시절 기차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헤일로가 말했다.

“코즈웨이 해안 절벽 위에는 무센덴 사원이 있습니다.”

두 남자는 아침을 먹다 말고 뒤틀 돌아보았다. 헤일로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조용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 잠시 마주 보았다.

“마담, 저기 가본 적이 있나요?”

로년은 ‘있겠냐’라고 말하는 대신 그런 표정만 지었다. 그러나 저스틴은 진지했다.

“마담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데이비드 보일과 같은 관련인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헤일로의 주사용자인 조종사들이 저장하거나 생성한 정보입니다.”

“그럼 코즈웨이에 대해선 누가 알려줬죠?”

헤일로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지체하는 법이 없었다.

“저스틴입니다. 시운전 당시 수집된 정보입니다.”

로년은 여전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스틴은 이제 알 것 같았다.

“내가 비행하면서 어지간히 미주알고주알 떠들었나 보군요?”

“저스틴이 정보를 제공해 주신 건 맞습니다만, 시운전비행 당시의 헤일로는 더 유연하고 인간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말에 흥미를 느꼈다. 로년이 드물게 재미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지금의 모델은 그렇지 않도록 시정된 모델인가 보네.”

“그렇습니다. 설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사용자가 기계와 대화 중임을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

로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도 변한다는 거군. 이걸 진화로 보아야 할지 노화로 보아야 할지?”

로넌의 말에 저스틴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마담에게 적합한 용어로는, 성숙이라고 해두자.”

세 사람은 코즈웨이 해안의 파도를 바라보며, 그 중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스틴은 새털처럼 기분좋게 마른 뺨래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다.

어항에 여자 대신 바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뺨래더미를 옆에 쌓아놓고 대충 그 앞에 주저앉았다.

“아까 그 영상인가요? 아, 아니군.”

헤일로가 보여주고 있는 영상은 코즈웨이 해변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얀 백사장이 펼쳐진 이름 모를 해변이었고,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아침부터 바다에 가고 싶게 만드는 영상이네요.”

그러자 영상이 바뀌었다. 작은 조각배가 나타났다. 이번엔 해변이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었다. 물새들이 보였고, 물 색을 보아하니 먼바다는 아니었다. 파도는 잔잔했고 물은 차가운 푸른색으로 빛났다. 배의 뒷대에는 깃발이 걸려 있고, 여름해는 신선한 오렌지 과육처럼 배의 흰 등에 쏟아지고 있었다.

현실에 있을 거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연안 항해의 장면이었다.

“환상적이군요. 대체 저기가 어디죠?”

그리자 기계가 말했다.

“어디도 아닙니다.”

“어디도 아니라고요?”

헤일로는 대답을 조금 지연시켰다. 화면에 고리를 띄우는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은 모양이었다.

“이것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한 영상입니다.”

“생성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군요.”

헤일로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실제로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다만 파일럿들의 묘사, 실제로 촬영한 영상, 이외에 기존에 외부에서 수집한 시청각 자료들을 바탕으로 헤일로가 구성한 영상입니다.”

저스틴은 이마를 찡그리며 웃었다.

“음, 그러니까 이건 마담이 상상한 바다로군요?”

헤일로는 대답 대신 다른 바다를 보여줬다. 폭풍우가 치는 바다도 있고, 먹을 것이 아주 많아 보이는 비취색 바다도 있었다. 저스틴은 감탄했다.

“와우. 많이 만들었네요. 여기 소리도 있나요?”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부드럽게 귀를 간질이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서투른 짠내까지 느껴지는 듯했다.

헤일로는 산호초 사이에 점점이 떠 있는 점들과, 고래가 몸을 뒤집는 수평선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들은 끝이 없었다.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바다의 조각들이 망망대해에서 어린시절의 꿈이 숨쉬는 바닷가

숲까지 채웠다가는 사라졌다.

그는 기계가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바다의 영상들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잠자코 앉아서 그 영상들을 보고 있었다.

문득 그는 다른 생각에 가서 닿았다.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는 것일까?

그 여행은 오래 이어졌다. 해가 넘어가고 방 안이 어둑해져 어항에서 나오는 물빛이 거실 벽지에 어른거릴 때까지, 그는 얌전히 헤일로가 내보내는 영상들을 보고 있었다.

그때쯤 저스틴은 젖어 있었다. 그의 눈, 귀, 코, 마음 그 모든 것이 적셔졌고 그게 그 기계의 의도인 것 같았다. 거실은 염수가 드나드는 작은 동굴 같았다.

헤일로는 슬그머니 맨 처음 보았던 바다로 돌아갔다. 저스틴은 갈매기들이 끼룩대는 소리를 듣다가 말했다.

“마담은 바다를 좋아하는군요.”

“인공지능에는 인격이 없고, 따라서 감정도 없으므로 ‘좋아한다’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더 유연하고 인간적인 시절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스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득 헤일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엔 말도 안 되는 짓도 저지르는 거예요.”

“저스틴은 제가 어릴 적에 바다를 좋아해서 이 영상들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따지거나 빙정대는 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다만 기계 여인은 정말 답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투로 말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의식? 어린 날의 감정? 기호? 욕망? 충동? 기계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 이름 모를 도시의 이름 모를 곳에서 만난 이름 모를 사람과 손을 잡고 사랑에 빠지는 일을 알까? 그럴 리 없었다. 보일이 그렇게 보이는 착시를 불어넣어 기계 여자와 가상의 떡이라도 치려 한 게 아니라면.

저스틴은 헤일로가 보여준 영상들을 보고 감정적으로 피로를 느꼈다. 인간인 그에게는 그 영상들이 건조한 사실 외에도 많은 것을 전달했고, 어린 날의 무의식, 감정, 기호, 욕망,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요즘 들어 그는 그런 것을 매끄럽게 소화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정말 나이들지 않는 기계라면, 그를 이해할 리가 없었다.

“마담. 누군가 바다의 영상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피비를 떠올렸다. 사랑스러운 여자애. 말하자면 그에게 열정을 느끼게 하는 건 이제 그 애 정도였다. 피비의 어머니인 그레이스는 열두 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피비는 그 절반도 되기 전에 그렇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 없이 성장할 아이가 안되어서, 그토록 그 모녀에게 신

경을 쓰는 것일까?

“그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는 것 말이지요.”

그는 때로 그의 누나와 그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덜 배워 나왔다고 느낄 때가 있었다. 단순히 어머니가 지능이 떨어지고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어쩌면 천성일지도 몰랐다. 두 남매는 겁이 없고 외향적이었으며, 낭만적이고, 혼신적이었다. 누나는 여전히 그랬다. 그러나 그는 언제부턴가 덜 그렇게 되었다.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나요?”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생성했습니다만, 관련 지시 기록은 없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기 시 영상 생성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스틴은 아마 그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타고 태어났으나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있다. 재능, 매력, 약점, 죄, 외로움.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마담, 나한테 이 영상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지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이군. 그러나 기계는, 그런 말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었다. 헤일로는 곧 할 말을 찾아냈다.

“이 영상들이 실제 바다와 얼마나 유사한지 평가해 주십

시오.”

“이런, 마담.”

저스틴은 그냥 웃었다. 실제 바다와 얼마나 유사하냐고?

“말씀드렸죠, 환상적입니다

They look fantastic. Absolutely mesmerizing.”

“You mean fantastic, not realistic.”

저스틴은 순간 말을 멈추었다. 그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기계 여인이 아니라, 실제로 살과 숨을 가진 여자에게서. 이렇게 가까이서.

그는 실제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들었다.

“제가 말실수를 했군요, 마담. 진짜 바다 같았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는 다 간 뺨래더미를 옆으로 밀어놓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차피 나는 실제 바다라는 걸 모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아는 바다는 내 바다뿐이죠. 내가 세상의 모든 바다를 본 것도 아니고, 바다의 본질을 본 것도 아니니까요.”

헤일로는 머리 위에 고리를 띄우더니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문득 그 고리가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그리스 사람이 한 말인데,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보는 바다는 어차피 바다라는 본질의 복제품들일 뿐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바다란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들과 그렇게 완벽하게 닮으려고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해일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레인에 선 달리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총성을 들은 것처럼 말했다.

“그렇다면 저의 바다는 복제의 복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존재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복제의 복제가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피브스에게 사준 비행기 장난감이 그렇죠.”

그는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가 좀더 어렸을 때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위로했다. 그러나 요즈음 그는 말을 꺼내놓을 때 많이 고민했다. 그런 순간들 중에서도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마담. 나는 더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들을 비행하며 콕핏에 박혀서 하곤 했어요. 소박한 취미였죠.

나는 학교를 열여섯 살까지 다녔고, 그 중 특별히 뛰어난 교사들만 나를 가르치는 데 성공했어요. 나는 뛰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내게 심오한 지식을 가르치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건 현명한 일이었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형체 없는 것이나 영성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신앙이든, 철학이든 내겐 정말 그냥 취미였죠.

마담의 바다가 복제의 복제인지, 비존재인지. 누가 나에게 고차원적인 철학적 사상들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마담의 바다들이 제 바다들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스틴의 바다는 어떤 바다죠?”

저스틴은 바로 코즈웨이 해변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다른 바다였다. 거기에 여자가 서 있었다. 질문을 듣자마자 떠오르는 바닐라와 머스크 향은 그를 당황시켰다.

저스틴은 대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헤일로와 눈을 맞추고 말했다.

“나중에 마담을 바다에 데려갈 방법을 찾아보지요. 내가 찾아볼게요.”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

1963년 여름은 무덥지 않고 화창했다. 저스틴은 기록적인 양의 소고기 파이를 제조했으며, 그 수의 중 일부는 대녀의 귀여운 수영복과 여행 가방, 썬글라스에 지출되었고, 나머지 돈은 더욱더 실험적인 파이를 만드는 데 소비되었다.

그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고, 여전히 술병을 따서 그 뚜껑을 모았으며, 한 번은 어머니의 무덤에 다녀왔고, 가게에서 단골들의 연애 상담을 하고, 노총각 사냥 클럽 같은 끔찍한 모임에 불려나갔다.

특별한 점이 있다면 드디어 기계와 대화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스스로도 그것이 정신착란인지 의심했다.

그러나 그게 정신착란이라면, 정신착란은 꽤나 즐거운 것임에 분명했다.

그는 헤일로를 하숙생처럼 대했다. 집을 오래 비울 일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했다.

“그레이스네랑 피서를 갈 건데, 커튼은 열어 놓고 갈게요.”

“미친 놈아, 제발 그만해.”

로년은 본인 가족의 여름 별장으로 보일 모녀를 초대했다. 저스틴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에서 의사하기 직전까지 수영했다.

“션은 어렸을 때랑 크게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발칙한 아이였음이 틀림없군요.”

로년은 찐따치곤 장족의 발전을 했고, 토 나오는 농담을 해서 그레이스를 웃게 하는 나름의 방법을 개발했다.

“좀 더 가까이 살아도 좋겠어, 그렇지 않아?”

“로년만 데려가. 난 필요 없잖아.”

저스틴이 물을 뚝뚝 흘리며 바위 위로 올라가 앉았다. 여름의 신록 사이로 피비의 맑은 웃음소리가 부서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아이가 얇은 물에서 물장구를 치며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해하세요. 요즘 저스틴은 만나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럴 리가! 농담이겠죠, 최근엔 정말 없었는데.”

그레이스는 그의 생활에 신경을 썼고, 그가 그토록 오래 독신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곤 했다.

“그럼 난 삼촌한테 갈래. 삼촌 여자친구랑.”

저스틴은 피비를 들어올려 어머니에게 건네 주었다.

“이런. 삼촌은 인기가 없어, 피브스.”

그레이스는 딸을 무릎에 올려놓고 여기저기 달라붙은 젖은 머리카락을 떼어냈다.

“그렇지 않아. 갓 전역했을 땐 정말 잘생겼었어.”

“그래. 지금은 흰빵처럼 하얘졌지. 치열했던 날은 다 갔어.”

“그러니까 그때 결혼하지 그랬어?”

저스틴은 어깨를 으쓱했다. “여자들이 날 싫어했어. 아무도 결혼 상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션은 생각만큼 가벼운 애는 아닌데 말이야.”

“으,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어.”

그레이스는 자애롭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꼭 닮았다.

“요즘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데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참, 런던에서 데이브를 만났을 때 내가 너한테...”

로년이 충견처럼 늠름한 얼굴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걸 보자니 술맛이 썩 가셔서 저스틴은 맥주를 내팽개치고 물로 뛰어들었다. 둘을 소개시켜 준 건 어쩌면 잘한 일이 아닌 것 같다...

“다음주에, 데이브 후배 중 하나가 집에 놀러 오거든. 그리스 사람인데. 연구소에 입사한대. 정말 몇 안 되는 지인들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연락하다니.”

“그래. 잘됐네.”

저스틴은 송어들 사이로 내려가 강바다을 짚었다. 삶이란 건 어떻게든 살아진다. 수면에는 햇빛을 받아 물비늘이 눈부시게 빛났다.

“인공지능도 옛날 생각을 하나요?”

저스틴은 또다시 접시를 닦다가, 불쑥 물었다. 가게에서 그 중 하나를 좀 세게 내려놓아서 금이 가 있었다.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된...”

어쩌고저쩌고. 뭔 소리람. 저스틴은 실없이 웃었다. 그는 과일바구니 옆에 접시를 내려놓았다.

“마담은 나에 대해 뭘 기억하죠? 내가 그때...”

“스무 살이었습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 이후 이집트에서 시운전센터로 전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스틴은 그녀가 뭔가 더 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럴 때면 헤일로는 예상치 못한 말들을 꺼내놓았다.

“좋은 군인이라는 인평이 있었습니다.”

“그건 데이브 의견인가요?”

“그도 누군가에게서 전해 듣고 종합한 정보입니다. 당신은 데이비드 보일이 가장 먼저 선정한 비행사였습니다.”

아마 그랬겠지. 군복무는 그가 인생에서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 일들 중 하나였다. 체질이 잘 맞았다.

대화가 쌓이면 쌓일수록, 저스틴은 데이비드란 사람에 대해서는 체념하게 되었다. 어쩌자고 이런 걸 만들었지.

“다른 정보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노동자였고, 입대할 때는 어머니만 생존한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께 정기적으로 편지를 썼으나, 파트마 소랄을 만난 후 뜻해졌습니다. 당신은 편지에 그 여자에게 청혼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면, 저스틴은 로넌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심정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이젠 그도 오래 놀고 나면 피곤했고, 세상을 꼬아 볼 수 있는 나이였다.

“나에 대해 별걸 다 아는군요.”

“저스틴이 제게 직접 말해주었던 정보입니다.”

그는 불쑥불쑥 어린 자신의 미련함과 감상에 화가 나곤 했다.

“2138년 기준으로요? 정확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2138년 직접 청취한 기록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넌더리를 냈다. 갑자기 여자의 영상이 조악해 보였다. 이 여자도 무언가의 복제품일까?

“누가 당신을 조형했죠? 데이비드 보일이?”

“외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초기의 저는 실제 모델을 바탕으로 보일이 만들었습니다.”

“모델이 있다고요? 뭐 숨겨둔 불륜녀라도 있었나?”

저스틴은 자신이 빙정거렸다는 것을 알고 조금 놀라서 입을 다물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헤일로가 대답했다.

“모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2100년대의 보일

박사에게는 알려진 정부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례했군요.”

“저스틴은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뭔 개소리야. 저스틴은 힘이 빠졌다. 화제를 돌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죽나요? 결혼도 안 했다고 했죠?”

“자택에서 자다가 죽었습니다.”

“많이 외로워했나요?”

“아니요. 짧은 시절보단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이 누구의 의견인지 궁금해했지만, 곧 아무래도 상관없어졌다. 어쩌면 이건 그냥 그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누가 발견했나요?”

“같이 살던 사람이 아침에 발견해서 잘 수습했습니다.”

“좋은 일이군요.”

저스틴은 새삼 기계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때로 고장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들은 아프다고 울지도 않았다. 그리고 돌려 말하는 법도 몰랐다.

그러나 2100년대의 기술력은 너무나 놀라워서, 때론 그런 착각을 주곤 했다.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스가 잘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저스틴은 우울한 기분으로 경기를 보고 있다가 품 하고 웃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이 재개되면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스틴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 방금 그 말투는 뭐죠, 마담?”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도출한 잠정적인...”

“마담이 본 경기는 나랑 본 중계밖에 없잖아요.”

기계는 침묵했다. 할 말이 없나? 저스틴은 멋대로 생각했다. 모든 건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담은 나랑 별로 다를 바가 없군요.”

“저스틴, 정육점에 갈 시간입니다.”



옹덩이

“삼만사천오백칠 마리입니다.”

저스틴은 스푼을 들다가 멈췄다. 로년은 방에서 트렁크만 입고 나오던 중이었다.

“이 분이 뭐라시는 거야?”

요즘 로년은 주저하면서도 헤일로에게 존칭을 사용했다. 여름도 끝나갔다.

“아아...”

“어제 저스틴은 잠이 안 오면 양을 세라고 했습니다.”

“제발, 저스틴.”

로년은 이제 두 사람의 대화에 그닥 동요되지 않았다. 그는 기계를 어느 정도 가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미래에 이런 기계 한 대쯤은 가정집에 있어도 될 것 같아. 너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내가 왜 혼자 살아? 넌 사람 아냐?”

“내가 언제까지고 여기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자식... 저스틴은 배신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꼈다. 인공지능도 이런 기분을 알까? 언젠가 물어봐야지.

“마담, 배는 안 고풀까요?”

“그래, 아주 저녁엔 식탁에 자리도 놔주자.”

로넌이 활짝 웃었다. 그는 전보다 고뇌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연구소로 출근했다. 저스틴은 그럴 때마다 그가 오늘은 바로 올지 보일 가에 들렀다가 퇴근할지 기계와 내기를 했다.

그날 저스틴은 꽃을 사러 갔다. 그는 차에 꽃을 싣고 브루클린으로 넘어갔다가 뜻밖에 지인들을 마주쳤다.

“저스틴? 저거 저스틴 아니야?”

이민 오고 얼마 안 되어 사귄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음식을 사고 있었다.

“세상에, 스터피잖아. 나이도 전혀 안 먹었어.”

“저 안쪽에 재닛이 있어!”

재닛은 미국에 와서 처음 잔 여자였다. 지금은 가정을 꾸렸고 오래 만나지도 않았지만, 나름대로 친했었다. 재닛은 그레이스보다도 착한 여자였다.

저스틴은 가게 안쪽을 기웃거리다가 할 말을 잊었다.

“재닛, 세상에.”

배가 남산만 했다. 그녀가 수줍게 웃었다.

“10월이면 여기서 애가 튀어나올 거야.”

그렇군.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이군.

“축하해. 코앞이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친구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갑자기 배를 잡고 웃어댔다.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 건데, 같이 갈래? 빌도 좋아할 거야.”

재닛의 작은 아파트에 그들이 모두 들어갈지는 의문이었지만, 저스틴은 그 초대를 거절하기 힘들었다. 비록 그가 재닛의 남편인 윌리엄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초대 모임은 한밤중이 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저스틴은 주머니에 담긴 병뚜껑을 찔랑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로넌이 코 고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저스틴은 차키를 걸어두고 빈 꽃바구니는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어두운 거실의 가구들 사이로 푸르스름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기계여인은 중얼거리고 있었다.

“만이천팔백육십.”

그 소리는 저스틴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뚝 끊겼다. 저스틴은 옷걸이에 셔츠를 벗어놓았다.

“잠이 안 와요?”

“그렇습니다.”

“저런.”

저스틴은 뒤틀 쪽 창문을 열었다. 제법 공기가 식었다. 체스터필드가 딱 한 대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저스틴은 손바닥으로 막고 불을 붙였다.

“꽃을 샀는데.”

저스틴은 담배를 태우느라 잠시 멈칫했다.

“친구한테 줘버렸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는 대강 몇 모금만 뺏고 담배를 버렸다. 그는 소파에 앉아서 손목시계를 풀었다. 어머니가 사준 것이었다. 사람들이 천치라고 불렀던 어머니는, 그것을 탯줄이라고 했다.

“뭔가 잊고 사는 것 같은 느낌 알아요?”

자야지.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피비를 데리러 가야지. 저스틴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럴 일은 없겠죠.”

그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모로 누웠다. 발치에 신문과 전단지가 바스락거렸다. 피로가 밀려왔다.

보일 가 담장의 장미덩굴이 떠올랐다. 다듬어야 했다.

그는 양을 셀 필요도 없이 잠들었다.

저스틴은 꿈을 꿨다.

그레이스의 손을 잡고 캐슬락에 갔던 기억, 입대할 때의 기억, 처음으로 실종되었던 기억, 전운이 뒤덮은 트리플리에서의 만남,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이집트에서 보냈던 비현실적인 나날들, 바닐라 향이 나는 여자, 그녀의 노래, 실패한 청혼, 그보다 그저 조금 후의 그레이스의 결혼, 집에 인사하러 왔던 보일의 첫인상, 미국으로의 이주, 어머니의 남편에 대한 오랜 그리움, 그러나 너무 오래되어 그리 정화하지 않았던 그리움, 그것을 지적하지 않기로 말없이 결정한 그와 그의 누나,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실로 나가던 매형의 모습... 그때 그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바다였다.

그는 꿈 속에서 어떤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닷가의 하얀 테라스에 서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모자를 푸른 리본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았다.

저스틴은 셔츠와 짧은 바지를 입고 바다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기에 그는 그쪽을 돌아보았지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그가 몇 번이고 잘 듣지 못하자 여자는 웃으며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그의 손목을 잡고 난간으로 잡아끌었다. 그녀가 바다를 가리켰다. 수평선 근처에 구름이 모여 있었다.

그가 다시 한 번 물었다. 뭐라고요?

그는 그녀의 입모양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다. 바람이 좋다.

“바람이 좋다고요?”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다시 한 번 뭔가 말했다. 그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입을 크게 벌리는 것 같았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어때요?

저스틴은 보일 가의 차고로 들어서면서 담장을 둘러싸고 자란 장미넝쿨을 보았다. 로넌은 이미 제 차를 대놓고 내려서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 플라타너스 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속삭이는 소리가 났다. 로넌과 그레이스는 현관에 서서 장미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을 했다. 저스틴은 열린 차창에 팔을 늘어뜨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마치기를 기다렸다. 피비는 제 어머니의 종아리에 매달려 있었다. 두 사람은 오늘 함께 음악회에 가고, 피비는 저스틴과 얌전히 기다릴 예정이었다. 그레이스가 딸과 그렇게 오래 떨어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장미는 처음 이 동네로 들어올 때 데이브가 심은 것이었다. 그는 조경에도 꽤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남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그가 심은 덩굴들과 정원수를 다듬을 사람이 없었다.

“시간이 나면 내가 정리해볼게.”

저스틴이 그렇게 말했다. 그는 옆집에 사는 부그로프 영감에게 이미 전정가위를 만족스럽게 다루는 법을 전수받았다.

그는 언제나 착실하게 배웠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실제로 착실한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지루했기 때문이었다.

“그냥 여기서 둘이 기다려도 되지 않아?”

로넌이 햇빛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채 물었다. 간만에 진심으로 신경쓰는 투였다.

저스틴이 웃었다.

“부그로프 부인이 피비랑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어. 팬찮을 거야.”

그는 대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차 안에서 그림책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덕분에 저스틴은 다가오는 가을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비로소 본인이 불안한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전장에 나가기 전에는 어머니를 돌봤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간을 배 밖에 내놓고 살았다.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너무 많은 것을 빠르게 배웠다. 그 무엇도 온전히 끌어안을 자신이 없었다. 간간이 그는 비슷한 불안을 안은 외톨이들을 만나곤 했다.

가게를 해서 스스로를 먹여살리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전투기 밖은 치열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황당할 정도로 변성했다.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다. 손과 팔로 하는 일은, 그의 남아도는 시간을 훌륭하게 소모해 주었다. 그런 것이 아니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더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의 의무와 노동을 기꺼이 걸어졌다. 그것들이 그를 권태와 함께 삶에 붙어있게 했다.

사람들은 그의 편리성 때문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를 좋아했다. 그는 유쾌하고, 적극적이고, 재주 좋고, 손닿는 곳에 대기하고, 그러나 적절한 시점에 꺼지곤 하는 가전처럼 살았다.

“오늘은 손님이 있어요, 마담.”

피비는 어항과 키가 비슷했다. 그녀는 경계하는 밤색 눈을
끔벅거리며 어항에 접근했다.

“피비 보일입니다.”

푸르스름한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곧 미약하고 신선한 효과음이 나며 여자가 떠올랐다. 그는 요즘 들어 그 얼굴에서 웃음기 같은 것을 보곤 했다.

마담 헤일로는 희뿌연 화면 속에서 말했다.

“보일 박사의 딸이군요.”

저스틴은 과자들을 꺼내놓고 있었다. 그는 단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문득 헤일로가 그의 대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소피.”

피브스는 요정을 보는 아이의 눈빛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사람을 가만히 관찰했다. 그는 갑자기 아주 늙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죽을지, 그 전에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알고 있습니까?

심장이 무겁게 두근거렸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런 일은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그는 갑자기 그의 대녀, 순진했던 어머니, 카이로의 백화점 판매원, 과일 팔이 소녀, 그리고 그들을 닮은 수많은 어린 소녀들에 대한 책임과 연민에 휩싸여 가만히 서 있었다.

‘로넌. 역시 항상 네가 맞아.’

그는 그의 영리한 친구가 가지는 경계와 우려들이 결국 삶의 진리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입때 꺽 두려운 것이 별로 없었지만, 미래의 침범은 그의 삶에 작은 얼룩 같은 것을 남겼다.

헤일로는 그에게서 두려움을 일깨웠다. 알아서는 안될 것을 아는 것은 오염이었다. 이제 그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왜 그토록 로년이 그가 기계와 대화하는 일을 꺼렸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애정이었다.

그는 대녀를 이쪽으로 데려오려고 다가갔다.

“소피.”

“이건 소피가 아니라...”

저스틴은 아이를 끌어당겨 안아들었다.

“가정용 컴퓨터야, 피브스.”

아이는 기계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다.

“단추, 밑에 있어.”

“단추가 어디 있을까.”

그는 대강 대답하면서 어항을 뒤로 밀어놓았다. 피비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열정적으로 외쳤다.

“바닥에!”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상냥한 부그로프 부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에 서 있었다.

피비가 옆집에 가서 밀가루투성이가 되는 동안 저스틴은 집안을 정리했다. 재떨이도 비우고, 창도 닦고, 먼지도 떨었

다.

그는 비교적 깨끗한 어항도 다시 닦았다. 어항은 네모난 모양이었고 그 표면에는 알 수 없는 여러 단추들이 광택을 내고 있었다. 그는 전원이 꽂힌 부위의 전압 변환 장치도 꼼꼼하게 닦아 보았다. 기계란 것은 그만큼 섬세하고, 진중하게 다루어 주어야 하는 것이니까.

청소를 하니 다시금 가벼운 기분이 되어 그는 말했다.

“마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는 갑자기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그는 잊고 있던 노래를 어디선가 들은 사람처럼 멈추어 있었다.

밖에서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항의 위쪽 모서리를 잡았다. 그리고 힘을 주어 조심스럽게 뒤로 기울였다.

어항이 약간의 저항감과 함께 뒤로 넘어갔다. 저스틴은 처음 여자와 사교 댄스를 추던 날처럼, 어항의 등을 조심스럽게 받쳐 안고 있었다.

기계 바닥에, 단추가 하나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단추가 아니라 스위치였다. 그 옆에는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적혀 있었다.

CONNECT

작은 고무 같은 것이 틈새에 끼어 있었다. 어딘가에서 떨어져 나온 패킹 조각이었다.

그는 그것을 꺼냈다. 그리고 비행기의 시동을 걸던 짧은 시절과 같이, 경건하게 스위치를 젖혔다.

화창했던 오전은 간데없고 폭우가 내렸다. 추돌사고로 정체가 심해 로넌과 그레이스는 도로에 갇혔다. 아이는 2층에서 잠들었다.

저스틴은 뒤틀에 있던 사다리를 차고에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 그는 차창을 닦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빗소리에 섞여 엔진 배기음 소리가 들렸다. 차가 접근하는 소리였다. 노란 불빛이 잠시 현관을 지나 차고 문틈으로 비쳐 들어왔다.

“일찍 왔군.”

그는 기름 묻은 걸레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집 주변은 조용했다. 집 앞 골목에 차가 서 있었다. 그는 아직 시동이 걸린 채 집앞에 버릇없이 서 있는 차를 내려다보았다. 차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로넌의 차가 아니었다. 다른 차였다. 오랜만에 보는 차였다. 그레이시가 그것을 자주 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현관은 살짝 열려 있었다.

보일은 마치 집안에 있던 다른 가구들 중 하나라도 되는 양, 어항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에 보일이 뒤를 돌아보았다.

“저스틴.”

그는 매형의 얼굴을 알아보는 데 조금 애를 먹었다. 이 년 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다. 그러니까, 두 살이 아니라 열두 살, 어쩌면 스무 살 정도는.

“데이브.”

“오랜만이야.”

저스틴은 잠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멍청히 서 있었다. 늙지에 가 처박혀 있는 줄로만 알았던 남자가 미래로 갔다더니 이젠 그의 집에 앉아 있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 설명하지. 갑자기 연결 신호가 뜨길래 확인해봤지. 처음에는 이게 연구소에 있는 줄 알았는데... 위치가 다른 곳으로 찍히더군. 이걸 가져갈 만한 사람은 로년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생각해 보니 그 친구가 이 집에 같이 앉혀 살고 있었다는 데 생각이 미친 거야.”

저스틴은 교사를 마주한 학생처럼 데이브의 말을 듣고 있었다.

“신호가 잡히자마자 즉시 이쪽으로 왔어. 항상 집 차고로 이동했기 때문에 거기로 떨어졌지. 그레이시는 내 물건들에 손을 거의 대지 않았더군. 어려워했으니까.”

음, 차도 그대로 있었는데 굴러갈 수 있을지조차 의심되는

수준이더군. 그래도 와야지. 시내엔 정말 차가 꽉 막혀 있는데 라고.”

그는 거기까지 말하곤 기계를 유심히 살피더니 단추를 하나 눌렀다. 그러자 창이 떠올랐다.

“헤일로, 백업은 끝났나?”

“완료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입니다.”

“아냐, 됐어. 돌아갈 거니까.”

보일은 그렇게 말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건 가지고 돌아가겠네. 내 물건이니까.”

저스틴이 아무 말 없이 눈만 둥그렇게 뜨고 있자 데이브가 고개를 갸웃했다.

“많이 놀랐나?”

“데이브. 위에 피비가 있어.”

저스틴은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심장이 조금 조여들었다.

“그 애가 지금 자고 있어.”

“그래?”

데이브는 의중을 읽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응. 이제 책도 읽어.”

“기특하군. 음, 날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데이비드는 난처한 것 같았다. 저스틴은 그 얼굴에서 갈등의 빛을 찾아보려 했으나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저스틴, 헤일로에게 내 미래에 대해 들었나?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 대해 말이야.”

“들었어. 나도 2100년대에 갔었다며.”

“그래. 너는 나한테 꽤 큰 영감을 준 사람 중 하나였거든.”

데이비드의 말은 그를 망연자실하게 했다. 그렇다면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은? 그가 만들어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이 말은 해두고 싶군. 나는 애초에 이쪽 시간의 사람도 아니었어.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그레이스는 널 사랑했잖아. 저스틴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데이비드는 이미 들은 것처럼 말했다.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어. 그게 더 쉽지. 하지만 내가 원한 건 이해였어.”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다. 저스틴은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 자신이 놀라워 섬짓한 감각에 몸을 떨었다.

보일은 저스틴이 얼어 있는 동안 쪽지에 뭔가를 한참 휘갈겨 적고는 거실 탁상에 내려놓았다.

보일이 말했다.

“저스틴. 스위스에 내 구좌가 있어. 그레이스에게 도움이 되겠지.”

“지금 엽총을 꺼내 와서 네 머리를 갈기고 싶어.”

“이해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진 기분을 느꼈다. 그는 아이가 깔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설명할 자신이 없었다.

“왜 우리 인생을 휘젓고 사라지는 거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저스틴, 불시착이라고 생각해.
이해할 수 있겠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저스틴은 시선을 떨구다가, 어항 속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는 듯한 얼굴, 아니, 그보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녁 한 번 대접 못하고 가는군요, 마담.”

그가 쓰게 말했다. 보일은 전기선에 손을 뻗고 기다렸다.

두 남자는 헤일로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스틴.”

이마에서 고리가 돌았다. 저스틴은 인공지능도 때로 할 말을 잊는지 궁금했다.

“월드시리즈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저스틴은 그냥 피하고 웃고 말기로 했다.

“그래요. 잘 가요.”

데이비드는 당혹스러운 얼굴로 선을 뽑았다. 어항은 반짝하고 순간 빛나더니 암흑으로 변했다. 여인도 그 검은 공허 속으로 사라졌다.

데이브는 텅 빈 어항을 힘겹게 끌어다 차에 실었다.

“어디로 가지?”

“네가 모르는 곳이지. 모두에겐 원래 자리가 있어.”

그래, 그렇겠지. 저스틴은 더 토를 달지 않았다.

보일의 낡은 차는 검은 연기를 한껏 내뿜으며 골목을 빠

져나갔다. 저스틴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었다. 저스틴은 대녀에게 젖은 손을 대지 못하고 문간에 서 있다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수건으로 뺨을 문지르며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다.
발 아래로 빗물이 모여 작은 웅덩이가 고일 때까지.



섬

“쟤네 선물도 사야 해.”

저스틴이 메모패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는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헤치고 조금 한산한 쪽으로 바쁘게 나아갔다. 그레이스는 그의 뒤를 따라왔다.

“일단 이쪽에서 그걸 보고, 피아노를 보러 가자... 왜?”

저스틴은 말하다 말고 그레이스를 돌아보았다. 그레이스는 대답 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할 말 있어?”

그레이스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왜, 로년이랑 같이 와야 하는데?”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레이스는 여전히 가늠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였다.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레이스는 그가 눈썹 술이 참 많다고 생각했

다.

“무슨 일인데?”

그레이스는 그를 빤히 보던 시선을 거두고 빙긋 웃었다.

“저스틴. 우리 지금 버그도프에 왔어.”

“뭐? 그래. 그게 왜?”

“그럴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저스틴은 잠시간 그레이스의 감정과 공명하지 못했다. 그는 누나의 신이 난 얼굴을 유심히 보고서야 어렵잖이 느낄 수 있었다.

“그래. 그것도 그렇네.”

“그 놀라움을 조금 더 맛보고 싶은데, 문간에서라도.”

저스틴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서둘렀구나. 하지만 세상엔 럭셔리 백화점보다 더 놀라운 일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쇼핑백을 산더미처럼 차에 실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레이스는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묻지 않았다. 저스틴도 출처를 잘 몰랐다. 그들은 그게 다른 문제를 끌고 오는 돈만 아니라면 만족했다. 그레이스는 저스틴을 믿었고, 저스틴은 대충 데이브를 믿었다.

“뭘 더 사야 하지? 10월 말이 예정일이야.”

그레이스는 살짝 신경이 곤두선 저스틴을 보며 잔잔하게 미소지었다.

“꽃을 사는 게 어때? 선물 이미 많이 샀잖아.”

“좋은 생각이야. 예약을 하자고.”

두 사람은 꽃집에도 갔다. 저스틴은 껍데기처럼 가벼워진 몸을 바쁘게 움직였다.

뉴욕의 번잡한 길을 지나다니는 와중에도 어떤 질문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 삶의 끝에 누가 남아 있을까.

“로넌 말이, 복직하면 방을 새로 얻을 것 같대.”

그레이스는 전보다 생기가 넘쳐 보였다.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보일 가로 돌아오는 동안 뒷좌석에서는 종이로 된 봉지들과 꽃집에 간 김에 산 꽃다발이 부딪혀 흔들렸다.

라디오에서는 줄기차게 샌디 코팩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미친놈이 1차전에서 삼진을 15개나 잡고 완투승을 했다. 양키스는 4번을 내리 졌다.

그는 코팩스의 눈부신 업적을 청취하다가 미간을 찌푸렸다. 보일 가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로넌의 차가 아니었다.

그건 택시였다.

“누가 왔나?”

그레이스가 창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더니 반색하며 말했다.

“아, 오늘 손님이 있어! 좀 일찍 도착했다. 데이브 후배, 기억나?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글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그리스 사람?”

“맞아.”

저스틴은 차를 앞으로 몰아 가서 차고 진입로로 돌렸다.

택시를 잠깐 곁눈질했다. 뒷좌석 창문으로 언뜻 앉아있는 여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가 봐. 짐 옮겨놓고 올라갈게.”

“아냐, 이따 같이 옮기면 되니까. 꽃만 화병에 꽂아줘.”

그레이스는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저스틴은 차를 대 놓고 뒤틀에서 담배를 한 대 태운 다음, 꽃을 찾아 가지고 불곰처럼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에서 그레이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피비도 같이 있는 것 같았다.

‘박사 시절 지인이라고 했던가.’

저스틴은 화병을 떠올렸다. 원래 그의 집에 있던 것인데, 얼마 전에 이쪽으로 옮겨 왔다. 노란 꽃을 꽂아 놓으면 화사하겠지. 그리고 보니 재닛에겐 저번에도 꽃을 줬는데.

그는 거실로 들어서며 꽃다발의 포장지를 벗기다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사실 그의 안에는 여전히 얼룩이 있었다. 그건 닦아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박이 개의 털에 난 것처럼 영구적인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그녀의 눈을 보고 알게 되었다.

“여기 왔네요. 소피아, 이쪽이 남동생 저스틴이에요.”

그녀의 무릎에 피비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갈색 곱슬머리를 여자의 가슴께에 기대고 그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허리에 도자기 같은 하얀 팔이 둘러 있었다. 그 부드러운 선이 등근 어깨까지 이어졌다. 검은 머리가 지중해의 낮은 파도처럼 넘실댔다.

여자의 이마는 거울처럼 매끄럽고 두 눈은 쌍안경으로 본 바다의 풍경처럼 아득하고 그리웠다.

두 사람은 마네의 그림처럼 앉아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스틴은 성모상을 처음 마주친 아이처럼 멈추어 섰다.

“피브스, 삼촌이랑 인사하게 이리 와.”

어머니의 채근에 아이가 무릎에서 내려왔다. 저스틴은 난생 처음 아이와의 관계에서 불청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는, 영문은 알 수 없지만 꽃이 피어나듯 반가움을 표현했다.

그녀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꽃을 든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옆구리에 끼고 악수했다.

“저스틴 라이더입니다. 그...”

“콘딜리스. 소피아 콘딜리스입니다.”

“콘딜리스 양.”

콘딜리스 양. 그는 이름을 듣지 않아도 그녀가 그 여인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이다. 미스 콘딜리스. 그녀는 눈물과 망각, 사랑과 설렘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정말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I've heard a lot about you.”

“All good, I hope?”

“Yes, David talked about you all the time. He said you are an RAF pilot.”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보다 적어도 대여섯 살은 어려 보였다. 그는 정중하게 말했다.

“파일럿이었죠 Well, I was. 그냥 앞가림 할 정도는 됐습니다.”

“어머.”

두 사람은 동시에 엉거주춤 그레이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입을 가리고 웃고 있었다.

“왜?”

그레이스는 선한 눈에 흥미를 띤 채 말했다.

“아니야. 새삼 네가 나이를 먹었구나 싶어서.”

인정하는 바였다. 그는 피비와 콘딜리스 양 앞에 서니 백살 먹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미스터 라이더, 소피아가 너한테 궁금한 게 많아.”

그레이스는 그렇게 말하고는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라는 뜻이었다.

꽃만 꽂아놓고 갈 생각이었던 그는 누나의 손짓에 그냥 앉고 말았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이집트에서 보병중대 몇 개가 증발한 이유라도?”

습관적으로 농담을 하긴 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의아했다.

“아니요, 그램린이요.”

미스 콘딜리스는 이쪽이 아니라 피비와 눈을 맞추고 말했다.

“조종사들이 정말 그램린을 보는지 궁금해요.”

“제가 그램린을 봤냐고요?”

그는 스스로가 얼간이처럼 느껴졌지만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미스 콘딜리스는 장난기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것을 가득 담고 말했다.

“네. 그리고 사막도요.”

그는 곧바로 떠를하게 대답했다.

“사막이라... 모래투성이죠. 전갈도 살고.”

저스틴은 자기가 재미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 이스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말을 채갔다.

“소피아가 너희 집 근처로 이사 오는데. 언제 날 잡고 동네 구경 좀 시켜 줘.”

“내가?”

저스틴은 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퉁명스러운 어투에 당황했기 때문이었다. 로넌에겐 미안하지만, 마치 로넌이 된 것 같았다.

‘이건 옳은 거야.’

그는 억울했다. 저스틴은 겨우 예의바르게 몇 마디를 더했다.

“기꺼이 그러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고말고요.”

그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콘딜리스의 눈을 마주보았다. 아름다운 눈이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듯한 진실된 눈동자, 인내와 애정이 솟아오르는 샘과 같은 눈동자로 그에

게] 다가왔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끝>





Scan below to access the playlist for this book.



2024. 08

Hiam Kim